

오만 만 유조선 피격으로 중동 내 긴장 고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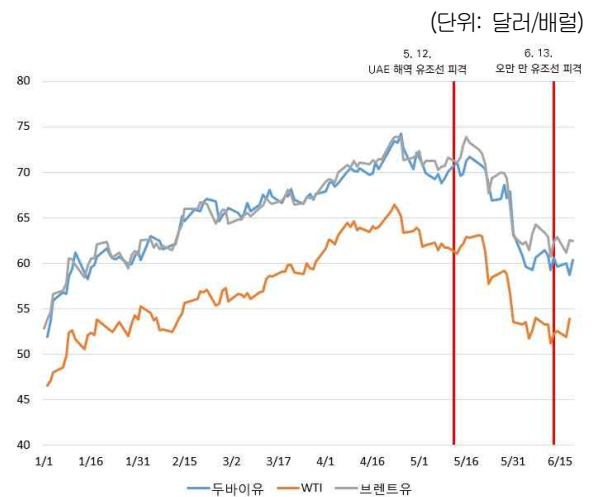
- 6월 13일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만에서 유조선 두 척이 공격을 받으며 중동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됨.
- 이번 공격은 지난 5월 12일 UAE 푸자이라 해역에서 유조선 및 상선 네 척이 공격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발생한 것으로 두 건의 공격 모두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나타나지 않음.
- 또한 이번 공격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, 공격을 받은 선박에는 일본 기업이 선주인 ‘고쿠카 커레이저스’ 호가 포함됨.
- 미국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, 영국 등도 이에 동조하는 가운데 이란은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반박함.
- 미국은 이란 순찰선이 피격된 선박 선체에서 폭발하지 않은 지뢰를 제거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공개하였으며 이전의 선박 공격도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함.
-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이란 정부가 일본 총리의 방문을 존중하지 않고 그의 방문 기간에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판함.
- 반면 이란은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이번 공격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작이라고 주장함.

그림 1. 오만 만 유조선 피격 해역



자료: BBC(2019. 6. 16), "Gulf of Oman: Saudi Arabia blames tanker attacks on rival Iran."

그림 2. 국제유가 추이



자료: Bloomberg.

-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잇따른 유조선 피격으로 양국 간 대립이 격화되고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됨.
-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 핵 합의(JCPOA) 탈퇴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의 외국 테러

조직 지정(' 19. 4.),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유예 중단, 금속 수출 제재(' 19. 5.), 이란 최대 석유화학 기업 제재(' 19. 6.) 등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였으며, 5월 초에는 항공모함,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중동 지역에 배치함.

- 6월 17일 미국은 방어 목적으로 1,000명의 병력을 추가적으로 중동에 파견하겠다고 발표함.
- 이란은 5월 8일 석유, 금융 부문 등의 제재와 관련하여 핵합의 당사국들이 60일 안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JCPOA 이행을 부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함.
- 이후 6월 17일에 이란은 저 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10일 뒤에 JCPOA에 규정된 한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힘.
- JCPOA는 이란 내 우라늄 농축 농도를 3.67%, 저 농축 우라늄 및 중수 보유량을 각각 300kg, 130톤으로 제한하고 있음.
- 두바이유, WTI,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이번 공격 발생 이후 약 2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- 유가 상승폭은 크지 않았으나 보안 위험 증가로 해당 항로 선박 보험료는 5월 피격 이후 5%~15% 상승한 상황에서 더욱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.

□ 추가 선박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-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이란의 핵 개발 재개 움직임에 따라 미국이 대응 강도를 높일 수 있음.
-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공격이 이어지게 되면 국제 유가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됨.
- 또한 세계 석유 수요가 회복되고 공급이 제한되면 유가 상승폭은 더욱 커질 수 있음.
- 한편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로 한국과 이란 간 경제협력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.
-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의를 종료하면서 2019년 5월 이란의 대한민국 원유 수출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남.
- 2019년 한국의 대이란 원유 수입은 전량 콘덴세이트로, 한국은 그동안 도입선을 다변화하여 원유 수급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주로 수입해 온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.
- 미국이 동맹국들에 반이란 전선 구축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점도 이란과의 협력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.

<자료: Al Jazeera, CNN, BBC, Guardian, Bloomberg, OilPrice.com, IEA 등>